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5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6일 (음력 6월 14일) 목요일

장흥 물축제 내일 개막 “노는 물이 다르다”

해변 분위기 풍기는 ‘장흥 플라주’ · 굴다리 미술관 첫 선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 살려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 제11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7일 장흥읍 탐진강변에서 막을 올린다. ‘물이 들려주는 장흥이야기’란 주제로 1주일간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차별화와 정체성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축제장 중간에는 해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장흥 플라주’가 운영된다. 모래사장 위에는 파라솔과, 선베드, 해먹을 설치해 색다른 느낌의 휴게공간으로 꾸몄다. 일광욕을 하며 쉬는 동안에는 버스킹 공연, 독서 등을 즐길 수 있다.

올해 물축제장에는 새롭게 생긴 공간이 하나 더 있다. 탐진강을 따라 이어진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며 생긴 굴다리 구간 500m다. 이곳은 휴(休)와 락(樂)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굴다리 아래로 드리운 시원한 그늘을 이용해 트리아트존, 수중포토존, 세계막거리 체험을 운영한다. 그 아래로는 천연염색, 가훈짜주기, 귀촌 홍보관 등 다양한 홍보·체

험부스를 마련했다. 물축제의 백미는 2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되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지인 장흥 석대들 전투의 역사적인 의미를 살려 서편 동화군의 ‘의’와 동편 관군의 ‘충’을 모티브로 물싸움 난장을 벌인다.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가는 거리 곳곳은 쏟아지는 시원한 물줄기와 물 폭탄으로 열광의 도가니를 이룬다.

지상 최대 물싸움에 이어 금년도 새롭게 도입된 킬러컨텐츠로 지상 최대 물풍선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20만개의 형형색색의 물풍선을 동시에 상대방에게 던지면서 물축제의 새로운 볼거리를 선보인다. 140년 전통의 장흥고싸움을 재현한 수중굴다리기 역시 예년 보다 훨씬 풍성하고 박진감 넘치도록 재구성다.

매일 오후 3시에는 맨손물고기 잡기가 열린다. 최대 2000명이 동시 입장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스티를 만끽한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남녀 노소 관광객들의 치열한 추격전이 볼 만하다.

이 외에도 바나나보트, 레보루션, 카누, 카약, 수상 자전거, 우든 보트, 대형 물놀이장, 팻북타기 등 물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탐진강을 동시 떠

나며 물축제를 또 다른 시선에서 즐길 수 있다.

정중순 군수는 “물축제가 더욱 성숙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 여름 많은 분들이 물축제를 통해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잘 될까?

관광지원의 보고(寶庫)인 담양군이 100만 관광시대를 목표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한다. 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환경·재해영향성 평가가 관련이 될 전망이다.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담양호 관광지내 추월산 자락에 케이블카도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 1차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담양호·추월산 케이블카는 총연장 4.2km로, 1구간은 추월산 주차장~정상 1.3km, 2구간은 추월산 정상~금성산까지 2.9km다. 사업비는 472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지역 내 여수 해양케이블카와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동력이 됐다. 관련 인사들의 추세를 상향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최형식



시민들



최형식

녹색생활실천대회 및 우수 회원 시상식 성료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 화순 하니움센터서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 이승자)는 25일 화순 하니움 문화

스포츠센터 만연 홀에서 녹색생활실천 다짐대회 및 녹색생활실천 우수 회원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식에서는 녹색생활실천 우수 지회 회장을 선정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영·심본부(최등호)본부장상 및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박원근)지사장상,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지부(이승자) 회장상을 수여했다.

한편 시상식에 이어 WE Green 매니저 위촉 및 녹색생활실천 다짐대회가 이어졌다.

전기절약, 녹색소비, 물 절약, 적정 실내 온도 유지, 1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이용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WE Green 7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백순기(전 동신교학교 환경학과) 교수의 ‘녹색생활실천으로 기후변화 대응’ 주제로 특강도 이어졌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양시, ‘전남도 유망기업’

중소 12개사 선정...도내 최다

광양시는 ‘2018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결과, 광양지역 기업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2개사가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재무상태, 기술력,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한다.

올해 선정된 광양의 유망중소기업은 ▲(주)서호산전(대표 김승호) ▲(주)신성플랜트(대표 라병열) ▲(주)신영엔지니어링(대표 김복식) ▲광양(주)대표 김영훈,김명훈) ▲(주)성원(대표 오권석) ▲(주)삼우에코(대표 김운자) 등이다.

또 ▲(주)제일시스템(대표 김충근) ▲(주)정해소재(대표 오수현) ▲(주)효석(대표 김효수) ▲(주)반보중공업(대표 남양준) ▲(주)피디텍(대표 박진완) ▲삼진기업(주)대표 박경희)도 까다로운 선정 기준을 통과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제8대 고흥군의회 개원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작은소리에드워 기움에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